

# 성벽과 말씀을 재건한 시대의 파수꾼 느헤미야 -복음으로 여는 느헤미야- 느헤미야 2:1-10, 로마서 12:21

정윤돈 목사님

\* **느2:1-10**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 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 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 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재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 **롬12: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성삼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적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나와 가정과 교회와 기쁨에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98개국에서 선교사님들과 제자들이 모여 선교대회를 했다. 과거에 보면 류목사님이 선교사님과 해외에 계시는 분들에게 약간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제자들을 세우셨다고 계속 말씀하시며 선교사님들을 존경하는 시간이었다. 한 선교사님이 중남미 사역을 하시는데 선교사님께 이번에 선교비를 드리며 얼마나 모이는지 물어봤는데 15만 명이 모인다고 하더라. 어떻게 하시느냐 했더니, 한 지역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목사님들을 모아 탐사역을 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면 좋아하신다고 하더라. 그중에 만약 한두 분만 반대해도 그 지역은 안 하고 넘어간다. 다른 데 가서 다 좋다 하면 훈련을 시켜주고 전도를 가르쳐줄테니 제자들을 모아달라고 하면 제자들과 신학생과 몇 백 개 교회를 모아놓고 훈련한다고 하더라. 스페인어도 못하시는데 구글 스마트 폰 번역기로 사역을 하시더라. 한 번 할 때 850명이 들어오더라. 저는 구글 번역기가 답답하던데 오히려 제자들이 알아듣기 힘들니까 말씀하시는 걸 다 받아 적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몇백 개 교회의 성도들이 남미 전역에 깔려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237나라를 붙잡을 때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몇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방송국 사장님과 국장님을 만났다. 그분이 파키스탄에 있는 제자들이 네트워크를 해서 메시지가 80개국으로 송출된다고 하더라. 파키스탄에 흩어진 제자들을 모아놓으면 훈련해준다고 하니깐 여기 제자들은 네트워크가 강해서 부르면 다 모인다고 하더라. 중직자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이렇게 된다. 이번 주 금요일 페루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 앞으로 어떻게 NGO를 하고 금도일을 할지 우리 교회가 하는 걸 보여줄 것이다. 화요일에는 북방 제자들을 훈련할 것이다. 많은 응답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결국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와 같은 제자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다. 대부분 선교지에서 복음으로 뛰어넘지 못해서 한계가 온다. 한계가 없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정치꾼이 아닌 다른 정치, 복음적인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을 때 느헤미야에게 페르시아는 자기 나라를 속국삼은 나라다. 그러나 거기서 페르시아 왕이 감동받을 정도로 일을 잘 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자 이스라엘에 성벽재건하는 일들을 다 도와줬다. 램넛들이 현장에서 리더자들과 지도자들을 변화시키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건 쉽다. 전도현장에서 땅대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지금까지 30개국을 가봤으니깐 일단 70개국은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다 자기 나라로 오라고 해서 조만간 70개국 다 가볼 것 같다. 현장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70나라의 문을 여신다. 어떤 여자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남아프리카 지역 14개국을 도신다. 그분과 함께 가는 팀들은 남아프리카 12개국을 다니시더라. 한번 돌 때마다 10개국씩 돈다.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붙잡을 기도제목이다. 어떤 선교사님은 스리랑카의 문이 페이스북으로 열렸다고 한다. 이번에 보니까 스리랑카에서 17년 동안 사역하신 분을 만나게 하셨다. 마음에 결단하고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호와이레로 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제가 예전에 브라질에 갔을 때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일주일동안 제게 얼마나 브라질 치안이 안 좋은지 탐사역을 하셔서 ‘앞으로 남미는 가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인도도 물이 안 좋으니 가지 싫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오히려 어려움과 위기로 뛰어들라고 하셨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모델이다. 진짜 문을 여시고 선교하시는 분들이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전도, 선교를 몰랐다. 성경에는 모든 족속과 만민에게 가라고 하는데 이해 안 되고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이 내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우리 기준이 그게 아니어서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절대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방 왕과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성도들과 후대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기도가 절대 기준, 수준, 표준이 될 때 가능해진다. 저는 70나라를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방송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그곳에 기본메시지는 있지만 저는 그 현장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스도로 결론 냈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예배학과 설교학, 교회행정, NGO와 복지를 가르칠 것이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이스라엘 1차 귀환할 때가 스룹바벨이고, 2차에는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도자였다. 느헤미야에게 귀환을 허락한 왕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하였다. 이미 1차, 2차 귀환 때 성전은 완성되었고, 총독 느헤미야는 성벽과 파수대와 성문을 재건했을 뿐 아니라 강력한 지도력과 정치적인 힘으로 말씀개혁까지 완성한 위대한 영적, 정치적인 지도자였다.

### 1. 느헤미야의 성벽재건 과정과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13장 중에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1)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선교현장과 복음을 위해서 울고 금식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는가?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울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현장에 어려운 곳을 위해서는 울지 않는다.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 있었다. 성전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은 교회의 문제에 마음을 담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마음을 먹는 것부터 시작된다. 선교와 전도와 캠프와 훈련과 공부와 리더자료의 준비, 3단체를 능가하는 응답에 마음을 먹는 것부터 절대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

(2) 2장에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라는 허락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사실 당시에 성곽을 재건하는 건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뜻의 정치적 의미이다.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조상들의 묘실이 무너졌고, 유다로 갈 수 있도록 조서를 써달라고 했다. 왕이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다 도와줬다.

(3) 3장에 보면 모든 백성들을 돌리하여 성문과 성벽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재건해 가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성벽이 무너진 것과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은 상관없었다. 그들에게는 느헤미야가 갑자기 노동을 시키는 것일 뿐이다. 에스라가 갔을 때도 말을 안 들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황제의 명령을 받은 정치적인 권력자였다. 램넛들 중에 국회 의원과 대동령이 나와야 한다. 그냥 목사님이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대통령과 갑부가 되어야 한다. 우리도 사회복지관을 하는데, 예베드리자고 하면 다 드린다. 우리 중직자가 원장이고, 대표가 목사님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어린이집 이름이 ‘그리스도 유치원’이다. 날마다 예베드리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한다. 학교 법인 가지고 방글라데시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한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해야 한다. 리더자를 바꾸면 다 온다. 서밋전도를 해야 한다. 느헤미야는 와서 3장 1절에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하였다.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 금장색과 향품 장사도 공사에 참여하였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례의 아들 옷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 사람들이 다 명품 장사고 부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노동할 사람들이 아닌데 총독 느헤미야가 와서 노동을 시켰다. 3장 12절에

보면 대단한 부자들 그 가족들도 참여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부자집 딸들이 노동했다. 정치지도자인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복음가진 사람이 권력과 힘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싸야 한다. 그리고 집과 마추한 성벽을 책임지고 중수하였다. 즉, 이것은 내가 있는 지역과 환경은 내가 복음화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느헤미야 3장 10절과 3장 28절에 보면, “자기 집과 마추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각각 자기 집과 마추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느헤미야는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탕감시켜줬다. 정치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후대들이 성공해야 한다. 우리 교회에 정치포럼 만들 것이다. 국회의원과 키페이커 포럼 팀을 만들 것이다. 지금부터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준비를 시킬 것이다. 이념싸움이 아니다. 요셉은 이방 왕이 감동할 만큼 다른 정치를 했다. 복음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 아니면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총독 느헤미야는 이렇게 효과적으로 책임지게 했던 것이다.

(4) 4장에는 신발땀 등이 성벽 재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그들은 비웃고, 무시하고, 위협하고, 협박하였고 심지어는 암살하기 위하여 4번이나 시도하였다.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정말 정치 못하겠다 생각했다. 서로 죽이려고 한다. 만약 우리가 조금만 공격받아도 빠지고 상처받으면 세계복음화 못한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위기와 어려움으로 도전해야 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옆 교회가 질투한다. 직장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아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 거기서 빛이 되고 살아남아야 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기도할 수 있다. 교회가 부흥할수록 여러분이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자군이 되어야 한다.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은 이러한 환경에 나가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방대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사명과 미션을 성취해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성공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당연한 거다. 위협과 어려움 속으로 램프들은 계속 도전해야 한다. 준비하고 자각증을 따고 일하고 돈 벌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비싼다. 갈등할 시간이 없다. 모든 곳을 전도와 선교로 연결해야 한다. 전도와 선교 생각이 먼저 있어야 한다. 4장 1절에 보면 그들은 크게 분노하면서도 비웃었다. “산발땀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제가 이 표정을 따라해 봤다. 미친 사람인 것 같다. 나만 생각하고 내 일만 생각하면 미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믿고 영혼까지 진짜 선교와 전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오직 ‘내 자식’, ‘내 돈’ 하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게 진짜다. 4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의 건축기술을 무시하였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하며 비웃었다. 세상 사람들은 칭찬할 줄을 모른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 항상 우리는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높여줘야 한다. 또 느헤미야 4장 11절에 보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하였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만약 어떤 사람이 참사랑교회 가면 죽이겠다 하면 여러분은 오시겠다.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

(5) 6장에 그들은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하여 4번이나 오노 평지로 느헤미야를 유인하려 하였다. 그러나 결국에는 52일 만에 성벽재건을 완성하였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다. “성벽 역사가 오십일이 만인 엘물릴 이십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나니” 이게 집중이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짧은 시간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어야 한다.

(6)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에 총독 느헤미야는 성벽재건으로 끝내지 않고 전 백성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모든 것을 새롭게 개혁하고 모든 국가시스템과 영적인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특히 느헤미야는 당시 말씀운동 사역을 하고 있던 에스라를 세워서 전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탁하였다.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만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만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못 백성이 그 율법책을 귀를 기울였는데”라고 말한다.

**2.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은 세월이 지나면 썩어지고 변질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말씀과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 날마다 기도수첩하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와 역사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은 항상 개혁을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단 이름도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이다. 루터와 칼빈은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Reformation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천주교와 같이 된다. 유럽과 미국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 이 개혁은 개인과 사업도 마찬가지다. 개혁은 생명이고 살리는 것이고 새롭게 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부활이다. 예수 부활로 개혁하는 것이다. 제자리에 있는 것은 썩고 부패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일본에 워크맨, CD가 있었지만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다 없어졌다. 지금은 4차 시대다. 준비하지 않으면 또 다 없어진다. 우리가 절대목표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사람들은 비판만 하고 안된다고 한다. 부정적인 것과 길을 찾는 건 다르다. 지금은 로봇시대다. 자율주행과 모바일, 유전공학시대다. 그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또 다 없어진다.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인물이 중직자 느헤미야였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느헤미야는 성벽재건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시키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다.

(1) 성벽재건을 반대하고 틀린 자기 동기와 욕심을 가지고 성전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도비야를 쫓아내 버렸다. 느헤미야 1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도비야는 엘리아십과 함께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틈에 성전 뜰에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 쫓아야 한다.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 정치하고 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못 한다. 내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헌신하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은 응답을 여러분과 후대들에게 주실 것이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봤지만 끝까지 지속하지도 못한다. 주장하는 게 ‘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동기가 없으면 아무 동기없는 제자를 붙이실 것이다.

(2) 느헤미야는 십일조를 거두어서 다시 레위인들을 모아 시례를 주고 예배와 제사와 찬양을 하도록 만들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2절이다. “내가 또 알 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헌금하지 않으니까 목회자가 다 없어진 것이다. 목사님들이 중요하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목회자가 없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다. 오르간과 여러 악기로 헌신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다. 느헤미야는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헌금하지 않아 레위인이 없어서 다 죽는 현장을 봤다.

(3) 주일성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였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 보니까 “그 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라고 하였다.

(4) 예루살렘에 와서 장사하는 두로 사람들과 유대지도자들을 꾸짖었다. 느헤미야 13장 16장에서 17절에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5)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권한을 가지고 결국 성문을 닫고 안식일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정치지도자, 권력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램프가 이 자리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서야 한다. 제대로 복음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성공자들은 복음만 원한다.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다. 총독 느헤미야는 당대에 위대한 정치지도자였고 영적인 리더였다. 이러한 인물이 일어날 때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는 성취될 것이다. 우리들은 237현장에서 이러한 인물들을 찾아내고 양육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한국 교회에서 이러한 중직자들과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하겠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자신의 현장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기를 기도드리겠다.

오늘은 7만대, 7여정, 7이정표 7.7.7기도문 중 7여정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다. 제가 선교대회 지나고 노트를 보니까 결국에는 7.7.7이다. 7여정 7가지는 삼상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산,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교회이다.

“① 삼상위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② 나에게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③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더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④ 어떤 어려움도 복음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산,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⑤ 나와 현장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⑥ 62가지 평생에 누릴 답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⑦ 오늘 어디어디 갑니다. 거기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현장과 말씀을 재건하기 위하여 237나라와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27차 세계선교대회에서 귀한 만남과 말씀과 비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들과 제자들과 우리 교단이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